



[뉴스] 해외 생산기지 줄줄이 섰다운 재가동 언제? 02



Economy

코스피	1686.24 (-18.52)	코스닥	516.61 (+10.93)
금리 (국고채 3년)	1.07 (-0.06)	환율 (원-달러)	1232.80 (+2.90) (26일)

사상 첫 '한국판 양적 완화' 금융사 유동성 무제한 공급

한은 금통위 개최

내달부터 3개월간 매주 1회 전액공급방식 RP 매입키로 금리 상한선 0.85% 설정 대상 기관·증권사 대폭 확대

한국은행이 다음달부터 3개월(4~6월)간 금융기관에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 매주 1회 환매조건부채권(RP)을 한도 없이 매입하는 것. 이 같은 전액공급방식의 유동성 지원은 외환위기 때도 없었다. 사상 처음이다. 사실상 '한국판 양적완화(QE)'에 돌입한 것이다.

한은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열고 RP 무제한 매입과 공개시장운영대상 기관 및 대상 증권을 확대하는 내용 등의 '공개시장운영규정과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은은 오는 6월 말까지 매주 1회 정례적으로 한도 없는 전액공급방식의 RP(91일 만기) 매입을 통해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 '한국판 양적완화' 시작

금리는 기준금리(0.75%)에 0.1%포인트를 가산한 0.85%를 상한선으로 설정한다. 입찰시 모집금리를 공고할 예정이다. 첫 입찰일은 4월 2일(목요일)이다. 이후부터는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된다. 7월 이후에는 그동안 입찰결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은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시중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면 RP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RP란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방안 실시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는 채권이다.

한은이 한도를 정하지 않고 RP매입에 나서 건 처음이다. 1997년 외환위기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실시된 적 없다. 앞서 한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 RP 매입을 통해 채권시장안정펀드에 출자한 금융기관에 2조 1000억원을 공급한 바 있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은 물론 전세계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됐고, 일부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조달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로금리 수준까지 간 다음에 더 이상 금리정책 여력이 없어 국채나 주택저당증권(MBS) 등을 매입하는 방식의 선진국 중앙은행 양적완화와는 다르다"면서도 "시장 수요에 맞춰 수요를 전액 공급하는 것이 사실상의 양적완화가 아니냐고 한다면 꼭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렇게 봐도 크게 틀린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한국형 양적완화로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도.

◆ 외화 LCR 규제 80→70%

한은은 또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통화안정증권·증권단수매매 대상 7곳, 국고채 전분 딜러 4곳 등 증권사 11곳을 추가했다. 신한금융투자, 현대차증권, KB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DB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이다. 기존에는 은행 16곳, 증권사 5곳으로 한정됐으나 대폭 늘린 것이다.

RP매매 대상 증권도 8개 공공기관 특수채를 추가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등이다. 대출 적격담보증권에도 동일한 공공기관 특수채와 은행채를 추가했다.

한편 한은과 기획재정부,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내놨다. 국내 은행들에 적용되고 있는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을 5월 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기존 80%에서 70%로 낮추기로 했다.

외화 LCR은 한 달 동안 빠져나갈 외화에 대비해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고(高) 유동성 자산 비율을 의미한다. LCR 비율이 높을수록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많아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만큼 오래 견딜 수 있다.

또 금융회사의 해외 차입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앞으로 3개월 동안 외화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외화건전성부담금은 정부가 금융기관이 보유한 비예금성 외화부채(단기차입금)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은행들이 외국으로부터 과도하게 자금을 빌리는 걸 막기 위한 것으로 2011년 8월 도입됐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26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에 위치한 에스엠면세점. /연합뉴스

에스엠면세점, 시내 면세점 특허권 반납 임대료 수백억... 코로나에 백기

롯데·신라 면세점도 휴업상태

동일해 월 매출액의 2배를 임대료로 내야 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하늘길을 막으면서 면세점 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실상 업무정지 상태에 돌입한 가운데, 매달 수백억원에 달하는 임대료는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날 에스엠면세점이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면서 '줄폐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이에 매달 월 평균 100억원 정도 적자를 보던 인천공항 면세점 업체들의 손실은 3월 한 달 동안에만 1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매달 수백억원의 임대료와 인건비를 지불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업을 접는 것이 낫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에스엠면세점은 지난 25일 인천공항 1터미널 신규 사업자 입찰 포기를 선언했다. 시내면세점도 철수한다. 서울 시내면세점은 9월 30일 문을 닫는다. 에스엠면세점은 인천공항 내 2개의 출국장 면세점과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등 사업을 확장해왔지만, 결국 코로나19에 백기를 든 것.

실제로 김포공항의 경우 국제선 청사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현재 휴업 상태다. 롯데면세점 김포공항점은 코로나19 사태 전까지만 해도 하루 평균 2~3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휴점 직전에는 하루 매출 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와 계약당시 최소보장액 조항이 있어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정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인천공항 면세점은 한 달 매출이 평소 2000억원, 임대료는 80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코로나사태 이후 이달 매출은 400억원으로 평소 대비 80% 감소가 전망되는 반면 임대료는 800억원으로

현대백화점그룹도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최근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찰전에서 패선·잡화를 취급하는 DF7 구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시내면세점에 이어 공항 면세점까지 진출한만큼 거래 규모를 확대, 명품 브랜드를 유치하게 됐다. 그렇지만, 하늘길이 막힌 상황에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시선이 존재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그치지 않는 외국인 매도... 코스피 다시 후퇴

경기 부양책 집행 전까지 변동성 장세 지속 될 듯

코스피가 다시 1700선을 내주고 후퇴했다. 한국판 양적완화(QE)가 발표됐지만 외국인과 기관 매도를 견디지 못했다. 코스닥은 2%대 상승으로 마감했다. 주요 국가의 경기 부양책이 실제 집행되기 전까지 금융시장 혼동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8.52포인트(1.09%) 하락한 1686.24에 장을 마쳤다. 외국인이 5312억원 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우며 하락장을 부추겼다. 기관은 2150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홀로 7177억원을 사들이며 매



코스피가 26일 한국은행의 '양적완화' 선언과 미국 상원의 대규모 경기부양안 통과 등 호재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했다. /연합뉴스

10.93포인트(2.16%) 상승한 516.61에 거래를 마쳤다.

증권가에선 글로벌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제 집행효과를 장담할 수 없어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시간차는 있지만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경기 부양책 등으로 최근 이틀간 15%가량 지수 상승효과 본 것"이라고 했다.

전날 20원 가까이 내렸던 환율도 다시 올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일보다 2.9원 오른 1232.8원에 마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

하늘길 막힌 항공업계 새 운수권도 무용지물

국내 항공업계가 차별화된 프로모션을 앞세워 '고객 모시기'에 나선다. 이는 국토부로부터 새롭게 운수권을 배분받았지만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무용지물이 되자 차별화 전략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거의 불가능해지며 운수권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적 항공사들은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새로운 노선에 취항할 수 있는 운수권을 배분받았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해당 운수권을 실제 활용하고 있는 곳은 에어인천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준 한국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심사를 강화한 나라는 180개국이다. 기존 국제선들도 비운항하는 상황에서 새 운수권의 배분은 무의미해진 것.

당초 7개 항공사가 운수권을 받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하늘길이 봉쇄됐기 때문. 반면 화물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은 러시아 노선을 주1회 추가로 띄우게 됐다.

날개를 펼 수 없게 되자 항공사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탑승객 공략에 나섰다. 제주항공은 항공권 취소 및 변경 수수료료를 1회에 한해 면제해주는 프로모션을 시행 중이며, 플라잉강원은 6개월간 전 노선에 대해 무제한 탑승이 가능한 '인피니 티켓'도 출시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